

能動的 人間의 探究(5)

哲學과 文學의 接觸面

金午星

3, 그러면 어찌하여 人間은 그 自身 客體의 一部이면서도 달은 모든 客體的 存在에 對하여 主體가 되는가? 그것은 人間에게는 生活 實踐이 있는 까닭이다. 生活을 廣義로서 解釋하면 그것은 人間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有機的 存在에게 共有한 現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 以外の 모든 生物에게는 生活은 있으나 生活實踐은 업다. (實踐은 能動性を 意味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의 生活은 能動的 實踐의 反에 反하여 달은 虫物의 生活은 受動的 反復인 것이다. 植物의 虫活은 一定한 氣候 土質 등에 順應 함으로서만 營爲된다. 動物의 生活은 本能과 習慣에 依하여 反復된다. 즉 植物이나 動物의 生活은 環境에 順應 할 뿐이요, 그것을 變化시켜 自己의 生存에 適應시킬 줄을 몰은다. 그러므로 自己 以外の 모든 存在에 對하여 主體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은 그와 反對로 能動的이요, 實踐적이요, 創造的이다. 人間은 항상 環境을 自己의 目的에 適應시킴으로서만 生存을 維持한다. 人間의 生活도 때로는 順應的이다. 環境에 依存하지 안코는 살수 업는 것임으로 할 수 업는 일이다. 그러나 環境이 自己의 生存을 威脅하게 될 때에는 人間은 環境을 征服하며 그것을 變革하여 自己에게 適應시킨다. 치위가 變할 때에 動物은 消極的으로 치위를 避하여 太陽쪽을 차즈나 人間은 치위에 反抗하여 집을 짓고 防寒을 함으로서 環境을 變化시킨다. 이러한 意味에서 人間은 環境의 反逆者이다. 人間은 單純히 本能的 欲求에 滿足치 안코 그 우에서 文化的 創造的인 生活을 要求한다. 이와 가티 人間의 生活 實踐만이 能動的인 까닭에 人間은 달은 存在에 對하여 主體가 되는 것이다. 主體性은 能動性を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生活 實踐이 能動的인 것은 人間의 生活에는 반듯이 意識이 伴隨하는 까닭이다. 人間은 意識의 發生으로부터 모든 存在와 自己를 分離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主體性은 이런 意味에서 보면 意識性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意識은 客觀을 構成하거나 對象을 產出한다는 일은
바 觀念論的 意識이 아니요, 어대까지나 人間의 生存 樣態 또는 生存 態度的
하나인 生存 意識인 것이다. 人間이 自己의 生存을 爲하여 外部的 存在와 接
觸 할 때에 外部的 存在는 人間에게 혹은 威脅的인 것으로 혹은 慰安的인
것으로 혹은 探究의 資料로서 어떤 問題를 提供하게 된다. 人間은 이 外部的
인 것에 對하여 어떤 主體的인 態度를 決定하지 안코는 生存 할 수 없다. 그
리 하여 威脅的인 것이 反抗 혹은 服從하며 慰安的인 것을 享受하며 探究의
課題를 解決하려는 人間의 生存 態度에서 거기에 相應한 意識이 생긴다. 이
러한 意識을 우리는 生存 意識이라고 한다. 이 生存 意識이 自己의 生存을
威脅하는 外部的 存在를 積極的으로 超克하려 할 때에 여기에서 能動的 精
神이 發揮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能動的 精神은 外部的 存在에 對하여 自己
의 生存을 積極的으로 □□하려는 人間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四

能動的 精神은 能動的인 生活 實踐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은
언제나 能動的일 수는 없다. 왜-그러냐하면 人間은 언제나 環境에 反抗 할
수는 없고 오히려 日常的으로는 環境에 順應하지 안코는 生存을 維持 할 수
없는 弱點을 가진 까닭이다. 人間의 生存이 環境에 順應될 때 그들의 生活은
受動的이며 受動的인 生活에는 受動的 精神이 隨伴 할 뿐이다. 이러한 狀態
를 나는 “日常성에 依한 人間性的 現況”이라고 불었고 싶다. 하나 人間의 生
存이 環境에 適應 할 때는 그 實環境도 人間 生存에 適應하는 때인 것이다.
外部的 環境과 人間의 生存을 서로 抗爭하는 對立物이면서도 日常的으로는
統一되지 안을 수 없는 일인 바 辨證法的 構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對立
의 統一은 어느 限度까지는 그대로 持續된다. 그것이 持續되는 限에서 日常
성에 依한 人間性的 現況은 免할 수 없는 일이다.